

朝鮮王朝時代に 있어서의

眞殿의 發達

— 文獻上에 나타난 記錄을 中心으로 —

趙 善 美

一、序 言

朝鮮王朝時代の 肖像畫를 研究함에 있어서 御眞 卽 王의 畫像에 關한 考察은 尙當히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現存하는 御眞이 數幅에 불과하여 作品에 卽한 樣式的 考察을 하기에는 많은 難點이 介在하고 있지만, 文獻上에 나타나 있는 御眞에 關한 여러 故實들은 御眞研究을 위한 資料로서 充分히 活用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御眞圖寫와 模寫의 製作過程, 이를 위한 都監의 設置와 運營, 製作된 御眞의 奉安節次, 完成된 御眞을 保存하기 위한 體制上의 問題等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御眞을 받들어 모시기 위한 處所로서의 眞殿에 關한 記錄은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承政院日記』, 『春官通考』, 『文獻備考』, 『東國輿地勝覽』, 『濬源謚略』과 기타 個人의 文集等에서 누차 散見되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이들 諸文獻에 수재된 記錄들을 中心으로 하여, 朝鮮王朝時代に 展開된 諸眞殿의 所在, 沿革, 變遷等 諸般史實을 整理하여, 그 發達過程을 살펴보고, 아울러 眞殿에 關連된 各種儀註를 通해 眞殿의 機能과 그 重要性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接近은 朝鮮王朝時代の 肖像畫研究을 위한 制度的 部面에서의

一 考察로서, 그 意義는 작지 않다고 하겠다.

二、眞殿의 發達

朝鮮王朝時代に 나타난 眞殿의 發達過程을 살펴보면, 國初에서 부터 太祖眞殿을 무려 여섯 곳에 세우고, 先王先后的 辟容을 奉安하기 위해서는 따로 濬源殿을 設置함으로서, 이미 眞殿體制의 輪廓을 드러내고 있었다.

太祖眞殿이란, 太祖의 辟容만을 받드는 眞殿으로서, 朝鮮王朝에 있어서 太祖는 一國의 始祖로서 特別한 禮遇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太祖眞殿은 時期上의 差異는 있지만, 대략 國初에 初建되었는데, 서울에는 文昭殿, 外方에는 濬源殿, 永崇殿, 穆淸殿, 集慶殿, 慶基殿을 두었다. 이렇게 太祖眞殿을 서울만이 아니라, 外方에도 分立하는 制는 中國의 漢制를 模倣한 것으로 생각되며, 漢나라에서는 始祖인 高祖의 廟를 京師만이 아니라 郡國에도 分立하도록 했다는 記錄이 보여, 太祖眞殿의 分立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①. 그러나 漢制에서는, 朝鮮王朝처럼 眞殿을 따로 設置했다는 記錄은 보이지 않으며, 단지 原廟를 郡國에 分立하고, 이 廟에서 眞影을 받들었던 것이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②. 이처럼 漢制를 본따서 外方에 세워진 朝鮮王朝의 太祖眞殿은 모두 太祖와 因緣이 깊고 또 三國時代以前부터 高麗時代に 걸친 동안의 首都였던 곳이다. 다시 말하면, 永興府의 濬源殿은 桓祖의 舊邸로서 太祖誕降의 터에 세웠으며, 慶基殿은 國系의 御鄉인 全州府에 세웠다. 또 新羅의 古都이자 高麗의 東京이었던 慶州府에는 集慶殿을 두었으며, 高句麗의 古都이자 高麗의 西京인 平壤府에는 永崇殿을 두었다. 또 開城府에 있는 太祖潛邸時의 舊宅址에는 穆淸殿을 세웠다.

이들 太祖眞殿 가운데 實錄의 記錄上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濬源殿이다. 濬源殿은 咸吉(鏡)道 永興府 順寧面 黑石里에 所在하며③, 곧 桓祖의 舊邸로서 太祖가 出生한 곳이다. 太祖五年 丙子(一三九六)에 初

建하였. ④, 七年 戊寅(一三九八) 二月에 藝文春秋館大學士 成石璘을 보내어 太祖의 眞影을 처음 奉安했다 ⑤.

뒤이어 同年 三月에는 太祖의 影을 鷄林府에 奉安했다는 實錄의 記錄이 보이는데 ⑥, 이 鷄林府란 곧 慶州府로서 이 奉安處는 慶州府客館의 북쪽에 있었던 集慶殿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集慶殿은 비록 殿號는 없었지만 ⑦ 太祖代에 이미 殿宇는 存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潛源殿이나 集慶殿과 함께 國初에 이루어진 것으로 思料되는 太祖眞殿으로 永崇殿이 있는데, 平壤府城內 高麗時代의 長樂宮 옛터에 있었다 ⑧. 이 永崇殿의 初建年代는 正確히 詳考할 수는 없다. 그러나 太宗 實錄 一二年 辛卯(一四一一) 五月 甲子條에 보면, 長生殿을 修理하고 太祖의 眞影 및 開國功臣의 影을 그리도록 命하면서, 完城君 李之崇을 平壤에 보내어 그곳에 있는 太祖眞을 奉迎하여 模寫하라는 記錄이 있다. 또 太祖가 太上王으로서 北狩時 西京影殿에 들러서 읊은 詩가 傳해 오는데, 그 內容을 보면 太祖의 畫像이 이미 그 當時 그 影殿에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⑨.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적어도 太宗 一一年以前에 이 殿이 세워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 殿은 太宗 一二年(一四一一)까지는 平壤御容殿이라는 명칭으로서 불리우다가 太祖眞殿으로 改號하게 되고 ⑩ 永崇殿이라고 指稱되는 것은 世宗二四年 壬戌(一四四二)에 이르러서다.

全州에는 또한 慶基殿을 두었는데, 이 殿은 全州府城의 南門內에 있으며, 太宗一〇年 庚寅(一四一〇)에 初建했으며, 이 해에 平城君 越狷을 보내어 太祖의 醉容을 奉安했다 ⑪.

이 밖에도 開城府 崇仁門內에 穆淸殿이란 太祖眞殿을 두었는데, 이곳 은 太祖潛邸時의 舊宅이었다. 이 殿은 太宗一八年 戊戌(一四一八) 五月에 初建하였으며 ⑫, 太祖醉容을 奉安하고, 近處에 崇孝寺를 세워 冥魂을 薦度하였다 한다.

以上이 外方에 둔 太祖眞殿으로서, 이들 眞殿은 殿官으로 參奉二員을 두었으며, 正朝, 寒食, 端午, 秋夕, 冬至, 臘日에 享祀했다 ⑬.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太祖眞殿은 이렇게 外方뿐 아니라, 서울에도 두었는데, 이 역시 漢制에서 京師에도 原廟를 둔 것을 模倣한 것이다. 서울에 둔 原廟가 곧 文昭殿으로서, 城안에 있었는데, 太祖 및 神懿 王后의 魂殿으로서 御眞을 奉安했다. 처음 이름은 仁昭였으나, 後에 文昭로 고치고 原廟로 삼았다. 그러나 世宗朝에 새 文昭殿을 景福宮 延春門內에 세우게 되고 원래의 文昭殿에 있던 太祖 및 廣孝殿에 있던 太宗 太祖, 太宗의 位版을 함께 합하여 모시니, 이로써 太祖原廟로서의 文昭殿은 廢止되었다 ⑭. 이 文昭殿은 朝夕으로 獻官이 入侍하고 宦官 및 內侍로서 垣官을 삼았었다 ⑮.

한편, 列祖의 醉容을 받들기 위한 眞殿으로는 璿源殿을 설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璿源殿이 實錄上에 처음 나오는 것은 世宗一二年 庚戌(一四三〇) 一二月로서 孝寧大君 補로 하여금 御容 및 璿源錄을 새로 지은 璿源殿에 奉安케 하는 記錄이 보인다 ⑯.

이 璿源殿의 設立은 宋朝에서 皇屬籍을 편찬하고 宗正寺에 詔書를 내려 屬籍樓를 세우고 그것을 엄히 받들게 하던 故事를 본 딴 것으로서, 朝鮮朝에서도 宗府寺 西쪽에 璿源殿을 세우고 璿源錄 및 祖宗의 醉容을 奉安하여 古制에 습하려 의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⑰. 그러나 그 當時 宗府寺는 대궐 바깥 閭閻집사이에 있었던 관계로 地勢가 狹隘하고 지저분하다고 하여, 世宗二〇年 戊午年(一四三八) 三月에는 景福宮 文昭殿東 北에 옮겨 짓게 하였다. 그리하여 同年五月에 새 璿源殿이 이루어지고 先王先后的 醉容 및 璿源錄을 奉安했는데, 奠獻의 禮는 없이 받들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太祖의 醉容만을 받드는 太祖眞殿이 마련되고, 他 便에서는 璿源殿을 두어 先王先后的 醉容을 받들던 것이 朝鮮朝初의 眞殿體制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世祖가 승하한 뒤, 睿宗元年己丑(一四六九)에는 世祖의 御眞을 받들기 위하여 새로운 眞殿이 세워졌다. 이 殿은 眞熹王后의 뜻을 받들어 京畿道 楊州 光陵南쪽, 奉先寺 東쪽에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崇恩殿이라 일컫고, 參奉을 二人 두어 朝夕으로 배알케 하고 朔望에는 獻官

을 보내어 陵寢의 禮와 같이 했다. 그後 成宗三年 壬辰(一四七二)에 奉先殿이라 改號했다¹⁸⁾. 그런데 朝鮮王朝時代의 眞殿制度上에서 볼때 奉先殿이 注目될만한 점은 世祖大王의 陵인 光陵 주변에 절(寺)을 세우고 이 근처에 影殿을 두어 御眞을 받들었다는 點이다. 이렇게 陵廟에 影殿을 두는 式은 高麗時代 眞殿制度에서는 익히 살펴볼수 있는 사실로서¹⁹⁾ 이 遺習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볼수 있는 동시에, 世祖大王이 품었던 崇佛의 性格의 一端 또한 窺知할 수 있다.

또 成宗四年(一四七三)에는 德宗의 別廟를 延慶宮에 짓고 德宗의 畫像²⁰⁾을 後殿에 奉安하였는데, 이것이 곧 懿廟後殿이다. 이 殿은 그러나 三年後인 成宗七年 丙申(一四七六) 正月에 그 影幀을 璿源殿으로 移安함으로써 廢止되었다. 이 懿廟後殿의 所在地는 未詳이며, 祭祀는 朔望 및 俗節, 忌辰에 지냈다²¹⁾. 이 懿廟後殿의 設置는 實錄의 記錄에서 미루어 보건대, 德宗은 登極하지 못하고 逝去하였기 때문에, 그 畫像을 곧바로 先王先后 御容奉安處인 璿源殿에 奉安하지 못하고, 太廟에 祔廟하기 前 三年間을 懿廟後殿에서 잠정적으로 받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壬辰倭亂이 일어나기까지의 朝鮮王朝時代의 眞殿制度는 漢制나 宋制로부터 部分的으로 制度的인 部面을 導入하여 절충하면서 進行되어 나갔다. 또 圖像作業도 壬辰倭亂前까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었음은 景福宮 璿源殿에 소장되었던 先王先后的 辟容의 數量을 살펴보면 아서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實錄의 記錄을 通해 이를 추려보면, 睿宗元年 己丑(一四六九) 六月에 璿源殿에는 이미 桓祖以下の 影幀 三三兩을 받들고 있었다²²⁾. 또 成宗三年 壬辰(一四七二)봄에는 王은 畫師 崔涇, 安貴生에게 昭憲王后, 世祖大王, 睿宗大王의 辟容을 模寫하도록 命하여, 이것을 璿源殿에 奉安케 했으며, 그 당시 소장하고 있던 御眞에 대하여 申叔舟로 하여금 「永慕錄」을 撰하여 記述케 했다²³⁾.

中宗三四年 己亥(一五三九) 八月에는 恭靖大王, 定安王后의 影幀이 華藏寺로부터 奉來되어 璿源殿에 잠시 奉安하였으나, 眞眞이 아님이 判

明되어 도루 華藏寺에 還安했다²⁴⁾. 그後 明宗三年 戊申(一五四八) 一〇月에 宗簿寺提調 洪暹이 올린 上疏文²⁵⁾을 보면, 當時 璿源殿에서 받들던 太祖 影幀만도 무려 二六軸이며, 太宗, 世宗, 世祖 역시 모두 影幀이 있고, 德宗, 成宗, 中宗 影幀은 모두 追寫本이 있으며, 또 成宗 影幀은 처음에는 一軸이다가 後에 改模로 因하여 九軸餘에 이르렀다 한다. 그런데 이 모두가 殿內에 쌓여 있어서 萬代後에는 뒤섞여 어지러운 廢가 있으므로, 初件이나 副件은 山陵이나 宗廟 혹은 文昭殿北 擇地에 파묻는 것이 便하다는 것이 論旨였으며, 이 意見은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때에 璿源殿에 소장되었던 御容들이 일단 整理를 보았다 해도 國初에 製作된 先王先后的 辟容이 數量에 있어서 어느 程度였는가는 이런 記錄들로 미루어 可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활발한 眞殿體制運營의 틀은, 宣祖二五年(一五九二) 壬辰亂으로 因하여 크게 瓦解될 수 밖에 없었다. 이 兵亂으로, 諸眞殿은 或은 모시던 影幀이 散佚되고 或은 殿宇 自體가 타버리곤 하였으며, 무사히 影幀을 奉出하여 移安을 한 경우에도, 移安에 移安을 거듭하는 가운데, 影幀에 毀損이 많이 갔으며 移奉年月이나 場所에 관한 故實도 諸文獻에서 상당한 牴牾를 보이고 있다. 이제 諸般記錄들로부터 壬辰亂時의 諸眞殿에 관한 史實들을 整理해보기로 한다.

璿源殿은 宣祖二五年(一五九二) 壬辰亂에 이르자 本殿參奉 鄭滄, 石麟이 땅을 파고 影幀을 묻었다가 敵이 물러가자 屏風山寺에 移安했으며²⁶⁾, 宣祖三三三(一六〇〇)에야 비로써 璿源殿을 重修하고 禮曹判書 朴承宗을 보내어 奉審한 後 本殿에 還安했다.

集慶殿은 壬辰倭亂時에는 本殿參奉 洪汝栗이 이 殿에서 받들던 太祖의 辟容을 奉出하여 禮安縣 淸涼山에 들어가 亂을 避했다가²⁷⁾ 江陵府에 새로운 集慶殿을 짓고 奉安하였다. 따라서 慶州의 集慶殿은 亂後에는 廢棄된 것으로 생각된다²⁸⁾.

또 平壤의 永崇殿 影幀은 몇몇 文獻에서는 他處에 移安되었다 하나, 移安處가 어디인지 詳考할 수 없으며, 實錄上으로는 전혀 移安의 記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散佚된 것으로 생각된다²⁹. 永崇殿의 殿宇도 불타 없어지고 옛터만 남게 되었다³⁰.

開城府에 있던 穆淸殿 역시 亂으로 인하여 타버리고³¹, 影幀마저 그 所在을 잃었다.

慶基殿은 宣祖二五年(一五九二)에 慶基殿參奉 吳希吉 등이 影幀을 받들어 井邑縣 內藏山 隱菴에 移安했다가 朝令으로 인하여 배(船)로 牙山으로 옮겼다가³² 江華로 옮겼는데, 移奉月日은 자세히 詳考할 수는 없다. 그러나 宣祖三〇年 丁酉(一五九七) 八月에는 江都를 떠나서 九月二七日에는 寧邊 妙香山 普賢寺 別殿으로 移奉했다³³.

奉先殿에서 받들던 世祖影幀은 壬辰亂을 당하자 奉先寺僧이던 三行이 影幀을 奉先殿 近處에 묻었는데, 後에 賊이 파내어 찢으려하자 三行은 애걸하여 겨우 온전할 수 있었다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다시 奉先寺 隱密處에 奉安했으나, 戰勢는 그 後 점점 惡化되어갔다. 그러자 그 當時 光陵參奉으로 있던 李爾瞻이라는 者가 三行에게 影幀의 所在을 물어 창황히 이를 奉出하여, 갖은 고초 끝에 宣祖二六年 癸巳(一五九三) 三月에 李爾瞻은 이 影幀을 받들고 關西에 이르러 寧邊府 客舍에 安置했으며, 當時 行在所에 있던 宣祖는 이를 맞아 웃었다는 記錄이 보인다³⁴. 그 後 宣祖三〇年 丁丑(一六〇三)에는 이 世祖影幀을 역시 妙香山 普賢寺 別殿에 移安하였다.

그러나 壬辰倭亂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景福宮 璿源殿이다. 이 殿에서 받들던 수많은 先王先后的 陪容은 漢城이 함락되자 모두 散失되고, 이 殿마저 폐기되었다.

이로서 亂을 거친 後에는, 殿宇로는 開城의 穆淸殿, 楊州의 奉先殿, 平壤의 永崇殿, 慶州의 集慶殿, 그리고 서울의 璿源殿이 폐기되었으며 받들던 影幀으로는 穆淸殿의 太祖影幀과 璿源殿의 先王先后的 影幀들이 모두 散佚되었다. 따라서 亂後에는 眞殿을 둘러싼 여러 問題가 惹起되었다. 이미 타버린 眞殿들에 대한 處理뿐 아니라, 무사히 奉出된 影幀들도 移安한 곳에 그대로 둘 수는 없으므로 本殿에로의 還安이나 혹은

이를 奉安한 새로운 眞殿의 設置가 要求되었다.

이에 대한 첫 수습책으로서 光海君六年 甲寅(一六一四) 六月에는 全州 慶基殿을 重建하고³⁵, 一一月에 中使 崔彥俊, 承旨 李好義, 禮曹判書 金闈를 보내어 妙香山 普賢寺에서 잠시 받들던 影幀을 慶基殿에 還奉했다. 또 이 影幀이 서울을 지날 때에는 禮를 갖추어 祇迎, 祇送하였으며 慶基殿에 還安한 後에는 本道別試를 設하여 衆心을 慰勞하였다³⁶.

光海九年 丁巳(一六一七)에는 平壤府에 永崇殿을 重建토록 命하였으며, 慶基殿으로 가서 太祖御容을 移摹하여 永崇殿에서 받들고자 하였다 또 楊州 奉先殿도 重建하여 당시 寧邊에 移安시켰던 世祖 影幀을 還安코자 했다. 그리하여 光海一〇年 戊午(一六一八) 가을, 太祖御容은 全州에서 移摹를 마친 後 平壤 永崇殿을 向해 가는 도중 水原에 있었으며, 一一年 己未(一六一九) 봄, 世祖御容은 寧邊을 떠나 楊州로 가는 도중 開城에 있었다. 당시 眞殿重建의 役은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다가 명나라 군사와 우리나라 군사들은 모두 西쪽을 경계하여야만 할 狀況이었다. 따라서 一一年 九月에 水原, 開城에 각각 禮官을 보내어 兩影幀을 우선 漢城에 迎入하여 잠시 南別殿에 奉安하였다가, 時期를 보아 永崇, 奉先 殿에 分安하고자 하는 조처를 취하게 되었다.

여기서 南別殿이 새로운 眞殿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南別殿이 곧 後의 永禧殿으로, 列祖의 陪容을 받드는 代表的 眞殿으로 점점 發展해 나가기 된다.

南別殿의 位置는 서울 南部 薰陶坊(現 孝洞)에 있었다³⁷. 이 殿의 터는 원래 世祖朝의 懿淑公主의 집이었으며, 中宗 元年 丙寅(一五〇六)에는 端敬王后 愼氏가 遜位時 이곳에 나와 살았다. 그 後 光海二年 庚戌(一一六二)에 恭嬪廟로 삼고 奉慈殿이라 일컬었는데, 前述했듯이 光海一一年 乙未(一一六一)에 太祖影幀과 世祖影幀을 奉安케 되었으며 이에 앞서 殿號 또한 南別殿이라 改號했다³⁸.

그러나 光海一四年 壬戌(一一六二)에 이 南別殿이 所在하여 있는 서울은 北쪽에서 쳐들어올 염려가 있다고 判斷하고, 江華府에 새로이 永

崇殿과 奉先殿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南別殿에 奉安되었던 太祖影幀과 世祖影幀을 이곳으로 옮겨서 江華府 永崇殿에는 太祖影幀을, 江華府 奉先殿에는 世祖影幀을 각각 奉安했다. 이로써 南別殿은 비게 되었다.

그러므로 壬辰倭亂으로 폐기된 慶州의 集慶殿, 平壤의 永崇殿, 楊州의 奉先殿에 대신하여, 새로이 江陵의 集慶殿, 江華의 永崇殿, 奉先殿이 나타나고 同名異處의 眞殿들이 이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 세운 江陵 集慶殿은 仁祖九年 辛未(一六三二) 三月에 火災를 입게 되고, 太祖影幀을 미처 奉出치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朝鮮王朝가 겪은 첫번째 큰 眞殿失火事件이었다. 當時 朝廷에서는 이에 대한 뒤처리로서 王이 素服하고 百官을 이끌고 三日間 哭하였으며, 宗廟 太祖大王 神位앞에서 慰安祭를 행했다. 그리고 失火된 곳을 살펴본 然後 潛源殿에 있는 太祖影幀을 模寫하여 江陵 集慶殿에 奉安하고자 했다. 當時 慶州 士人들은 이 事件을 계기로 하여 慶州에 다시 遷奉하여야 한다고 疏를 올렸지만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辛未 集慶殿 災後 潛源殿 太祖御容으로부터 移摹했다는 記錄(41)은 諸文跡에서 屢見되고 있지만, 集慶殿의 復廢가 어느 時期였는지 未詳이다(42). 다만 正祖二二年 戊午(二七九八)에는 이 터에 碑를 세우고 御筆로 「集慶殿舊基」 五字를 새기도록 命한 記錄이 보여서(43), 이미 그 전에 이殿이 폐지되었음은 分明히 알 수 있다.

한편, 이 辛未失火事件이 일어난 즈음 뒤인 仁祖一〇年 壬申(一六三二) 六月에는 仁祖는 父인 元宗을 追崇하여 元宗의 辟容을 崇恩殿에 奉安했다고 하는데, 이 崇恩殿이 어디 所在했는가는 未詳이다(44).

以上이 仁祖의 丙子, 丁丑兩亂以前の 眞殿體制의 윤곽인데 이것이 仁祖一四年(一六三六), 一五年(一六三七)의 丙子胡亂과 丁丑再亂으로 인하여 다시금 커다란 混亂을 겪게 되었다.

潛源殿은 丙子亂에 이르자 永興府 儒生인 朴孝男이 太祖辟容을 받들어서 末應島中 篙師의 집에 移奉하여 다행히 保存했다하며(45), 다시 仁祖一五年 丁丑(一六三七)亂에는 本殿 參奉 南斗樞가 沙島 海夫家에 移奉했

다가 亂이 平定된 後 三月에 監司 閔聖徽가 받들어서 移安室에 還安했다가 辛巳에 이르러 正殿을 修理한 後 비로소 還安했다(46).

全州의 慶基殿은 仁祖一四年 丙子亂에 當하여 太祖影幀을 茂朱 赤裳山城에 移奉했다가, 亂이 平定된 後 本殿에 還安했다.

또한 光海一四年 壬戌(一六二二)에 새로 세웠던 江華府 永崇殿은 仁祖一五年 丁丑(一六三七)亂으로 江都가 함락되자 받들던 太祖御容은 남김없이 破傷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丁丑年 四月에 宗廟 北階上에 埋安하였다(47). 또 江華府 奉先殿에서 받들던 世祖影幀은 丁丑亂時 城外에서 겨우 주웠으나 약간 破裂이 있었으므로, 同年 二月에 禮官을 보내어 影幀을 서울로 받들었다 改粧하여 崇恩殿(元宗御容奉安處)에 元宗影幀과 함께 두었다. 그 後 南別殿을 重修하고 世祖影幀은 第一室에, 元宗影幀(48)은 第二室에 奉安하였다.

이로서 仁祖一五年 丁丑亂을 거친 뒤의 眞殿과 그 眞殿에서 받드는 影幀은, 이제 潛源殿과 慶基殿의 太祖影幀과 南別殿에서 받들게 된 世祖影幀과 元宗影幀에 불과했다.

이렇게 위축되어버린 眞殿制로 인한 自覺으로 부터, 肅宗三年 丁巳(一六七七)에 이르러 南別殿을 移建하자는 論議가 있게 된다. 元來이 南別殿 자리가 閭閻집 사이에 있는 데다가, 殿의 터가 絕岸 밑이어서 비가 오면 관 물이 부딪혀 나오며, 殿宇 自體도 많이 傷害있는 故로, 이機會에 仁慶宮 正殿舊址를 擇해 移建하라는 命이 있었다. 그러나 이 南別殿은 太廟와 함께 首都의 象徵的 建物이며 또 累朝를 내려온 眞殿을 一時에 옮길 수 없다는 大臣들의 上疏(49)로 인하여 곧 취소되고, 殿宇를 改修하는데 그친다(50). 그리하여 本殿을 增建하게 되는데 장차 太祖의 辟容을 모시기 위해 미리 一室을 더 添造하여 三室이 되었으며, 이때 世祖, 元宗의 御眞은 第二室, 第三室에 奉安하고, 第一室은 비게 되었다. 그 後 肅宗一四年 戊辰(一六八八)에 宗室 郎原君 偁의 疏請으로 慶基殿 太祖御容을 移摹하여 南別殿에 奉安하자는 議論(51)이 있어서 드디어 大臣, 禮官 承旨를 보내어 慶基殿 御容을 奉來하여 移摹한 後 南別

殿第一室에 奉安했고, 이로써 南別殿은 三室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肅宗一六年 庚午(一六九〇)에는 南別殿이란 殿號를 永禧殿으로 고쳤다⁵² 이처럼 肅宗은 既存의 眞殿인 永禧殿을 増建하는 한편, 새로이 眞殿을 설치하였는데, 長寧殿과 萬寧殿이 그것이다. 長寧殿은 江華府城內 松嶽山 밑에 所在했으며, 이 곳은 永崇殿舊址였던 곳이다⁵³. 이 長寧殿은 肅宗二二年 乙亥(一六九五)에 初建되어 同年 肅宗御容을 奉安했다.

그後 三九年 癸巳(一七二三)에 이르러 肅宗은 御眞圖寫都監을 設置하고 自身の 悴容을 그리도록 하고 御眞이 完成되자 二品以上 三司諸臣으로 하여금 瞻拜도록 하라는 命을 내렸다. 그런데 이 당시 草本이 善本이라 곧바로 洗草하기는 미안하다하여 이 草本을 櫃子에 받들어 太白五臺中 深僻處에 璿錄奉安과 같이 奉安함으로써 永久히 간직하는 議論이 있었다. 그러자 一部 大臣들은 都監設置 自體도 張大浮誇한 面이 있으며, 瞻望儀節 역시 대단한데 草本의 璿閣奉安은 허황하며 지나치다는 上疏를 올렸고, 이어 王의 解明이 있었다⁵⁴. 그리하여 결국 癸巳圖寫御眞中 一本은 櫃에 넣어 長寧殿에 奉安했다가 死後 展奉(퍼서 걸어두기)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一本과 草本은 內에 두었다가 後에 璿源殿이 세워지자 여겨서 奉安하게 되었다. 長寧殿은 그後 景宗 元年(一七二二) 八月에는 新殿을 다시 짓고 肅宗의 癸巳圖寫御眞을 展奉하게 되었다.

또한 萬寧殿은 肅宗三九年 癸巳(一七二三)에 세워졌으며, 長寧殿에서 東쪽으로 九步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初建當時에는 別殿이라 稱하고, 長寧殿의 董輿를 보관했다가 英祖二二年 乙丑(一七四五) 二月에 이르러 英祖의 御容을 奉安하고 명칭도 萬寧殿이라 改號했으며, 이때부터 眞殿으로서의 機能을 시작했다. 그러나 正祖即位年 丁酉(一七七七) 八月에는 이 萬寧殿에서 받들던 英祖御眞을 長寧殿으로 移奉하였으므로, 마침내 萬寧殿은 비게 되고, 長寧殿은 肅宗御眞과 英祖御眞을 다 받들게 되었다. 이 長寧殿은 俗節에 享祀했으며, 殿官은 參奉과 別僉을 各一員씩 두었다.

한편, 肅宗이 昇遐한 뒤, 仁元大妃는 昌德宮 仁政殿 西쪽에 새로운

璿源殿을 따로 세우도록 하고, 肅宗의 御容別本을 받들어 萬瞻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昌德宮 璿源殿의 시작으로서, 처음에는 肅宗의 御容만을 奉安했으나, 英祖二四年 戊辰(一七四八)에는 이 璿源殿에서 받들던 肅宗御容을 二本 摸寫하여, 一本은 永禧殿에 奉安하고, 一本은 璿源殿에 橫藏하도록 했다. 그後 이 璿源殿은 갈수록 眞殿으로서의 機能을 확대하여 나가서, 正祖一년 丙申(一七七七)에는 英祖御容을 奉安했으며, 純祖二二年 壬戌(一八〇二)에는 正祖의 御眞을 받들게 되어 一殿三室을 지니게 되었다. 璿源殿은 朔望마다 王이 친히 焚香, 瞻拜하였으며, 誕辰日에는 茶禮를 지냈고, 中官을 두어 守直토록 하였다.

또 永禧殿 역시 列祖의 悴容을 받드는 眞殿으로 發展하면서 英祖二四年 戊辰(一七四八)에는 二室을 더 添造하여 五室을 이루고, 앞서 본 太祖, 世祖, 元宗, 肅宗의 影幀外에도, 正祖二二年 戊戌(一七七八) 五月에는 英祖御眞을 第五室에서 받들었는데, 이 永禧殿의 享祀日은 正朝, 寒食, 端午, 秋夕, 冬至, 臘日이라고 한다⁵⁵.

이처럼 英正朝時代에는 永禧殿 및 璿源殿의 機能을 發展시켰으며, 아울러 御眞圖寫作業도 활발히 展開시켰다⁵⁶. 璿源譜略에 依하면, 英祖는 一二本, 正祖는 七本을 圖寫했다 하는데, 이로써 璿源殿, 永禧殿, 長寧殿, 萬寧殿 같은 既存의 眞殿만이 아니라, 새로운 奉安處가 必要하였다.

그러나 이 時代에 나타난 眞殿들은 새로이 세워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미 다른 用途로 쓰여졌던 堂이나 宮에 御眞을 奉安하여 두는 方法이 使用되었다.

即 英祖二二年 乙丑(一七四五)에는 肅宗에게서 下賜받은 英祖 潛邸時의 悴容을 慶熙宮 泰寧殿에 奉安했다. 泰寧殿은 資政殿 西쪽에 位置하여 원래는 堂으로 불렸으나, 御容을 奉安함으로써 殿으로 昇格했다⁵⁷. 그러나 正祖가 即位하자 곧 이를 魂殿으로 삼았기 때문에 받들던 影幀은 잠시 景賢堂에 두었다가 正祖二二年 戊戌(一七七八) 三月에 璿源殿에 移奉했다.

英祖는 또 毓祥宮에도 御眞 奉安閣을 두었는데, 이 宮은 英祖大왕의

生母인淑嬪의 廟로서 景福宮 北쪽 백악산 아래(現宮井洞)에 있었다. 이 廟는 英祖元년에 세워졌으나, 二〇年後인 英祖二〇년에 毓祥宮이라 改號했으며, 四九年 癸巳(一七七三) 三月에는 英祖의 畫像 二幅을 奉安했다. 實錄에 나타난 記錄을 보면, 御眞을 이곳에 두는 것은 生母를 항상 옆에서 모시려는 뜻에서라고 하였다⁵⁸. 英祖는 또한 英祖의 潛邸였던 彰義宮 藏寶閣에도 자신의 畫像 二幅을 奉安했다.

正祖 역시 英祖時의 毓祥宮 故事를 본따서, 正祖一五年 辛亥(一七九一) 一〇월에 자신의 畫像을 景慕宮 望廟樓에 奉安했다⁵⁹. 이 景慕宮은 곧 思悼世子와 妃인 獻敬王后의 廟로서 昌德宮안에 있었다. 正祖는 即位하자 父의 廟를 景慕宮이라 하고, 園을 永祐園이라 일컬었다. 永祐園이 곧 後의 顯隆園으로서 正祖는 이곳에도 奉安閣을 두어 자신의 畫像을 적었는데, 이 역시 毓祥宮에 자신의 畫像을 두었던 英祖의 意圖와 같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純祖元年(一八〇一) 正月에 이르러, 이 顯隆園은 昇避한 正祖의 陵인 健陵으로 封禪해 놓은 곳에서 가깝다 하여 水原 華城行宮의 華寧殿으로 移奉케 되었다⁶⁰.

그 後 憲宗三年 丁酉(一八三七)에는 純祖와 翼宗의 御眞을 景祐宮의 誠一軒에 奉安했는데, 이 景祐宮은 純祖의 生母인 綏嬪朴氏(正祖의 後宮)의 廟다. 奉安을 앞둔 그 當時의 實錄의 記錄을 보면, 景祐宮의 誠一軒에 奉安하는 것은 先朝 平日聖孝를 可히 一分이나마 우렐어 위로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⁶¹. 이 景祐宮은 처음에는 昌慶宮 都總府안에 세웠다. 純祖二四年(一八二四)에 北部 觀光坊(現桂洞)으로 廟를 옮겨 景祐宮이라 일컬었지만, 純祖二年(一九〇八)에 宮井洞七宮이라 하여, 李朝歷代王中 正宮出身이 아닌 君主의 私親을 한 곳에 모심으로써 毓祥宮과 함께 宮井洞으로 옮겨졌다.

또한 正祖는 五年 辛丑(一七八二) 九月에 奎章閣 宙舍樓에도 御筆, 寶冊, 印章과 함께 御眞을 奉安했는데, 이것은 宋나라 때 天章閣에도 御眞을 奉安시켰다는 故事를 模倣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이처럼 英祖, 正祖, 純祖의 御眞은 각기 因緣이 깊은 宮에서 모셔지

거나, 혹은 宋나라의 天章閣故事를 모방하여 奎章閣에서 받들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列祖의 辟容을 받드는 眞殿인 璿源殿과 永禧殿에도 奉安하였음은 물론이다.

璿源殿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純祖二年 壬戌(一八〇二)에는 正祖의 御眞을 받들게 되어 一殿三室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 後 憲宗一二年 丙午(一八四六)에는 景祐宮 誠一軒에 奉安되어 있던 純祖와 翼宗의 御眞을 받들게 되었다. 哲宗二年 辛亥(一八五二) 五月에는 憲宗의 御眞을 또 璿源殿에 奉安하였다. 또 高宗 光武四年(一九〇〇) 五月에는 太祖의 御眞마저 璿源殿本을 移奉하여 奉安하게 됨으로서 璿源殿은 七室을 이루게 되었다.

永禧殿 또한 正祖二年 戊戌(一七七八) 五月에 이미 五室을 이루었음은 이미 살펴보았거니와 哲宗九年 戊午(一八五八)에 純祖의 御眞을 奉安함으로써 太祖, 世祖, 元宗, 肅宗, 英祖, 純祖의 御容을 모두 받들게 되었다.

그런데 璿源譜略을 훑어보면, 앞서言及했던 英正祖만이 아니라, 純祖(四本), 翼宗(八本), 憲宗(四本), 哲宗(四本), 高宗(三本)이 모두 圖寫를 많이 했던 記錄이 보인다⁶³. 이렇게 圖寫된 御眞들은 璿源殿, 永禧殿, 景慕宮, 景祐宮, 奎章閣에 分安되었다.

그러나 高宗三年 丙寅(一八六六) 二月에는 天漢殿을 宗親府內에 創建하고 哲宗御眞 四本을 奉安했으며⁶⁴, 一二年 乙亥(一八七五) 一二月에는 다시 景慕宮 望廟樓로 移奉했으며, 光武三年(一八九九)에는 景慕宮에 奉安했던 御眞들을 宣禧宮 平樂亭으로 다시 移奉하였다. 宣禧宮은 莊祖 母인 曠嬪李氏를 享祀하는 곳이다⁶⁵.

그런데, 朝鮮王朝末 高宗朝에 이르면, 周知하는 바 外勢의 壓力이 잦아졌으며, 高宗三年 丙寅洋亂으로 因하여 當時 江華 長寧殿에서 받들던 肅宗과 英祖의 兩聖御眞은 江華府 西門外 白蓮寺로 잠시 옮겨졌다가, 丙寅(一八六六) 九月에는 永禧殿으로 移奉했다⁶⁶.

하지만 朝鮮王朝時代의 眞殿에 관련된 가장 큰 故實은 高宗 光武四

年(一九〇〇)陽曆一〇月一四日の璿源殿失火事件이었다. 앞서 考察한 바와 같이 당시 昌德宮 璿源殿에서는 太祖, 肅宗, 英祖, 純祖, 翼宗 憲宗의 御眞을 받들고 있었는데, 이 失火時 이 七室 御眞을 모두 奉出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즉시 影幀摹寫都監과 眞殿重修都監이 合設되었으며, 大臣會議가 열리고 移摹 増建이 一時가 急함인 論議되었다. 그리하여 七室에서 받들던 御眞 모두를 璿源殿, 永禧殿, 毓祥宮, 宣禧宮等 他眞殿에서 받들던 御眞을 本으로 삼아 移摹하자는 節目이 決定을 보았다(67). 또한 仁祖九年 辛未(一六三一)의 集慶殿失火時의 例에 依해 王이 素服하고 百官을 이끌고 別殿에 나가 三日間 哭을 했으며, 宗廟 七神位 앞에서 慰安祭를 베풀었다.

또한 本格的인 移摹作業에 착수하여 同年一〇月二六日 璿源殿으로 부터 太祖影幀을 奉來하여 興德殿에 安置되었으며, 十一月一九日에는 永禧殿에 봉안되었던 肅宗御眞, 純祖御眞, 毓祥宮 冷泉亭에 奉安되었던 英祖御眞 그리고 宣禧宮 平樂亭에서 받들던 正祖御眞, 翼宗御眞, 憲宗御眞이 移摹를 위하여 역시 興德殿에 안치되었다. 이로써 朝鮮王朝時代의 大대적인 移摹作業이 始作되었으며, 一二月一〇日에는 移摹 初本을 奉審하게 되었다. 高宗 光武五年(一九〇一) 一月六日에는 移摹影幀 粧軸을 奉審하고, 이때 他眞殿에서 가져온 舊本들 가운데 修補할 것을 손보았다. 同年 二月 四日에 高宗은 東宮以下 時原任大臣, 閣臣, 宗親及 正二品以上이 入瞻하는 가운데 標題를 마치고, 二月五日에는 永禧殿, 冷泉亭, 平樂亭 御眞들은 還安되었다. 그러나 璿源殿은 아직 重建되지 못한 관계로 列聖影幀 璿源殿本은 中和殿에 임시로 두었다. 璿源殿 太祖影幀은 日氣가 풀리지 못하여 慶運堂 靜觀軒에 임시로 두었다가, 同年 四月 二九日에야 비로소 還安하게 되었다. 그리고 六月 一三日에는 璿源殿 各室 影幀을 모두 奉安하였다.

以上으로 璿源殿 失火로 말미암은 眞殿重建과 移摹作業이 八個月이 걸려 모두 完修되었다. 그런데 이 璿源殿失火로 因하여 대규모의 移摹가 벌어지자, 이를 계기로 太祖御容을 一本 더 移摹하여 옛 穆淸殿을

重建하고 이를 奉安하자는 上疏가 올려지고 이에 대한 議論이 있게 되었다(68). 드디어 이 案이 允許되어 光武五年(一九〇一) 二月에는 開城府 行宮에 奉安했다가 穆淸殿 營建이 끝나기를 기다려 三月에 奉安했다(69). 壬辰倭亂으로 폐기되었던 穆淸殿은 光海君 때부터 重建의 議論이 있었지만, 朝廷으로 부터 내내 잊혀졌다가, 이 璿源殿 失火로 因하여 慶基殿 璿源殿과 함께 다시 太祖眞殿으로서의 機能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朝鮮王朝가 減할 때에는 새로운 眞殿의 面貌를 갖춘 璿源殿 그리고 이 璿源殿과 함께 列祖의 辟容을 받들던 永禧殿, 또 璿源殿, 慶基殿, 穆淸殿의 太祖眞殿이 있었으며, 그 밖에 小規模의 御容奉安處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朝鮮王朝時代의 實質上的 王은 아니었던 桓祖의 啓殿이 啓聖殿이라는 名稱으로 太祖四年乙亥(一三九五)에 設置되었다고 하나(70), 어느 時期에 廢止되었는가 또한 그 所在地는 어디였는가 역시 자세히 상고해 볼 수 없다.

三、眞殿의 機能과 重要性

이제까지 朝鮮王朝時代에 나타난 諸眞殿의 展開過程을 시대적 흐름을 따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朝鮮王朝時代에는 相當數의 眞殿이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壬辰, 丙子의 兩亂으로 因하여 眞殿體制上에는 屈曲과 變化가 不可避하여 眞殿의 개폐가 심했지만, 御容奉安處로서의 眞殿의 存在와 그 必要性 自體가 輕視되지는 않았다. 항상 舊眞殿에 대신하여 新眞殿이 대두하였으며, 可能한 限 同一한 名稱과 機能을 이어나갔다. 이 때문에 同名異處의 眞殿이 많이 생겼으며, 諸文獻의 記錄에서도 이로 因해 적지 않은 混亂마저 惹起되었다. 따라서 眞殿에 관한 史實을 整理함에 있어서도 이를 판가름하는 데 세심한 注意가 要求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眞殿을 그 機能과 重要性이라는 部面에서 살펴보고

자한다. 眞殿은 우선 御眞을 奉安함으로서 그 機能을 始作한다. 그런데 眞殿에서의 御眞奉安方式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明示해 놓은 儀註가 따로 없으므로 하나의 公式을 導出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實錄에서 散見되는 記錄들을 간추려 대략 그 輪廓을 잡아 보면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眞殿에서는 御眞은 그 王이 登極하여 있을 때는 橫에 넣어安置하고, 승하하면 퍼서 奉安하는 것이 通例였다. 그러나 景福宮 璿源殿에서는 函에 넣어 받들고 있었던 듯하다. 이 점은 앞서 言及했던 明宗朝의 宗簿寺提調였던 洪暹의 上疏文 가운데, 璿源殿에서는 梓宮 같은 딱딱한 函에 넣어 꼭 봉해 두므로 陽氣가 드나들 수 없었다가 갑자기 열어 놓아 奉審한 즉 靛色의 原因이 된다고 하는 그 구절(71)에서 確證할 수 있다. 또 崇恩殿, 懿廟影殿 亦是 橫에 넣어 奉安하였음은 實錄의 記錄에서 살필 수 있다(72). 그러나 一般的인 경우는 대부분 展奉하여 두었으며, 이 展奉함에 있어서도 壁에 붙여 두면 좀이 잘 쓴다 하여, 옷걸이 모양의 걸이를 만들어 여기에 걸어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73). 그런데 同王의 御眞이 數本일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大本이며 잘 된 것을 걸어두고, 小本은 橫에 넣어 御榻 뒤에 安置하는 것을 定式으로 했다(74).

또 肅宗朝에서는 兵亂에서의 經驗을 토대로 하여, 따로 黑長筒을 하나 만들어 平時에는 眞殿 뒤 別殿에 奉安하고, 急亂時엔 三朝晬容(當時 永禧殿에서는 太祖, 世祖, 元宗의 三晬容을 奉安하고 있었음)을 모두 一筒內에 넣어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하는 案을 내었으며(75), 그 後 英祖二四年 戊辰(一七四八)에 이르러서는 四筒을 만들어 이로서 四朝影幀(當時 太祖, 世祖, 元宗, 肅宗影幀)을 각각 一筒씩으로 하는 制를 두어 흥미롭다. 이것은 非常時를 대비한 방책이지만, 平時時에도 數本을 圖寫하거나 模寫하여 洗滌을 하지 않아 新舊本이 생기기 되면, 그 中 一本을 展奉하고 나머지는 櫃子에 넣어 保管했다가, 훗날 바꾸어 展奉하기도 했다.

以上이 眞殿에서의 御眞奉安方式의 概要인데, 이 밖에도 捲奉의 形式

으로 奉安했던 記錄도 보인다(76).

그러나 眞殿의 存在意義는 단순하여 이러한 御眞奉安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眞殿이 眞殿으로서의 機能을 올바르게 維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行사가 있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허다한 儀註가 要求되었다.

이를테면, 御眞을 奉安하기 위하여서는 그 形式的 절차를 담은 儀註가 있어야 했으며, 이것이 곧 御眞奉安儀였다. 御眞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靛色하거나 損傷이 갔는데, 이 경우에는 移摹하여 新本을 만들거나 舊本을 修補해야 했으며, 이로써 御眞奉審儀와 御眞移安儀가 必要했다. 그러나 記錄上에서 보면, 兵火나 失火로 因해 御眞을 奉出하여 移安할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非常時였으므로 禮를 갖추어 儀대로 移安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다만 本殿으로 還安하거나, 他眞殿으로 平時時에 移安할 경우에는 儀를 갖추어 還安儀나 移安儀에 따라 奉安했다. 또 御眞을 移安할 경우, 移安에 앞서서 告動駕祭를 베풀고, 還安後에는 酌獻禮를 행했는데, 各各 또 儀註가 부수되어 있다. 御眞을 보내고 받을 때에는 祇送, 祇迎의 禮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儀註 역시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들 儀註는 眞殿의 規模나 그 當時의 事情에 따라 兪동성있게 조절되곤 하였는데, 이에 反해 眞殿에 관련된 儀註中에서 가장 엄격한 절차와 까다로운 宰임새를 갖춘 것은 享祀儀였다. 璿源殿을 除外한 大部分의 眞殿은 대개 正朝, 寒食, 端午, 秋夕, 冬至, 臘日의 六名日에 享祀했는데, 이 경우 王이 친히 남시던 親祭와 一般祭가 있었다. 물론 이 享祀儀 역시 時代나 場所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儀註의 種類나 절차상의 威嚴은 宗廟의 儀禮에 버금가고 있다(77).

本稿에서는 이러한 儀註들의 內容을 일일이 列舉하여 살필 必要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들 儀註에 나타난 各種行事に 관련된 部署와 陪參官吏를 살펴봄으로써 眞殿이 지닌 重要性의 一端을 엿볼까 한다.

實錄에 나타난 記錄을 훑어 보면, 御眞을 奉安하기 위해 파견되는 관리는 대개 宗室의 君이나 承旨, 禮曹判書 등의 職分을 가지고 있었다.

또 御眞을 奉審하는 경우에는 王과 王妃, 東宮以下 時原任大臣, 閣臣,

正二品以上の 관리들이 瞻拜를 하였으며⁷⁸⁾, 奉審하는 場所는 眞殿에서 奉審함을 原則으로 하였다. 그러나 부득이 眞殿에서 奉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卜日하여 焚香한 後 儀仗을 갖추어 正路로 하여, 正門을 통해 正殿에 安置하여 奉審하였다⁷⁹⁾.

또 御眞을 移安하기 前에는 告動駕祭를 베풀어 肅敬을 미리 알리고 還安의 경우에도 酌獻禮를 行함은 이미 지적하였는데, 이 경우 場所가 서울인 경우에는 王이 親行했으며, 外方인 경우에는 承旨나 近臣을 보내어 陪參科 하였다. 또 祇送, 祇迎의 경우에도 서울을 지나거나 서울에서 送迎할 때에는 王이 친히 남시어 엄숙한 儀註에 따라 禮를 베풀었다.

한편 享祀儀를 살펴보면, 이를 行하는데 참여하는 官階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永禮殿 親享의 경우 陳設, 車駕出宮 및 望殿禮, 行禮(初獻, 亞獻, 終獻, 飲福, 望瘞), 車駕還宮의 順으로 짜여진 까다로운 절차나 준비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齊官, 亞獻官, 終獻官은 議政이 담당하며, 禮儀使는 禮曹判書(有故時에는 次官)가 맡으며, 禮史齊郎 各三人은 文參上이 담당하고 있다. 또 瀦源殿等 地方에 所在하여 있는 眞殿이 享祀일 경우, 齊官, 獻官은 觀察使가 담당하며 有故時엔 즉 本邑 長官이 맡고, 典祀官은 所在하여 있는 邑佐貳官이 맡아 보고 있다⁸⁰⁾.

또 眞殿의 行事に 직접 관련되고, 이를 관장하는 部署는 禮曹이지만 이 禮曹外에도 眞殿의 올바른 機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工曹, 兵曹, 吏曹, 戶曹, 刑曹 등 各部署가 연루되어 있었다. 부연하자면, 禮曹는 祭祀를 직접 관장하며, 工曹는 祭祀에 쓰는 諸般物品 製作과 失火時의 營建을, 刑曹는 眞殿에 두는 殿直 등이 罪를 犯한 경우 罪과를 조사 처벌하며, 兵曹는 御眞奉安, 移安, 享祀時의 仗衛等을 設하며, 吏曹는 眞殿이 맡은 임무를 修行해 나갈 殿官의 人選等을, 戶曹는 眞殿 주변에 둔 奉祀田의 管掌과 이를 위한 人口動員에 관여하였다.

이로서 眞殿이 차지한 位置를 可히 살펴 수 있으나, 眞殿의 重要性이 예리하게 노출되는 것은 眞殿失火事件을 通해서였다. 朝鮮王朝時代에

는 仁祖九年 辛未(一六三一)의 集慶殿失火와 高宗四年(一九〇〇)의 瀦源殿失火라는 커다란 두 事件이 있었다.

仁祖 辛未 集慶殿失火後, 禮曹에서 올린 啓를 보면, 集慶殿失火로 미처 影幀을 奉出치 못했는데 影幀은 神主와 一體이니, 王부더 마땅히 素服을 하고, 百官을 거느리고 三日間 哭하며, 또 宗廟 太祖大王 神位앞에서 慰安祭를 設하고 아울러 江陵 集慶殿에도 官을 보내어 位를 設하여 慰安祭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 前에 各陵 失火가 있을 때 王부더 素服하였으나, 內殿에서는 따로 變服의 禮가 없었지만, 이 影幀의 災는 陵上失火보다 重하므로 慈殿, 內殿, 嬪宮 역시 아울러 素服三日이라고 칭하여 이를 모두 允許하고 行했던 記錄이 보인다⁸¹⁾. 그리고 三日間 朝市를 멈추고, 兩司 역시 아울러 멈췄으며, 三日 減膳 撤樂하였음을 알 수 있다. 高宗 光武四年의 瀦源殿失火 또한 이 集慶殿失火時의 例에 依據하여 뒷처리를 하였으며, 다만 七室 影幀이 모두 타버렸으므로, 宗廟에 있는 七神位앞에서 慰安祭를 行했다. 그 밖에 朝鮮王朝時代에 발생한 적은 失火나 眞殿近處의 失火, 伐木事件 그리고 大雨 大雪等の 경우에도 역시 慰安祭를 지냈었음을 記錄에서 살펴 수 있다. 이처럼 眞殿에서 모시는 影幀은 宗廟에서 받들던 神主만큼의 重要性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眞殿이 차지하는 朝廷에서의 比重 역시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四、結 語

지금까지 朝鮮王朝時代에 展開되었던 諸眞殿에 관하여, 그 所在, 沿革, 故實等을 文獻上에 나타난 記錄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 보았으며, 이어서 眞殿의 機能과 重要性의 一端을 眞殿에 관련된 各種 儀註를 通해 대충 考察하여 보았다.

이런 作業을 通해서 眞殿이란 단순히 御眞을 모시는 處所로서 先祖를 위한 孝思追慕의 情禮에 基因하여 要求되었던 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

었다. 一王朝의 眞殿은 그 王朝의 祖宗의 永久之圖를 辟하고 形式的 威嚴과 秩序잡힌 體制를 통해 國家라는 보다 큰 輪廻를 意識하도록 유도했던 하나의 社會的 制度의 産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見地에서 볼 때, 두 번의 戰亂을 당했을 때, 미친한 參奉이 왜 같은 고초를 무릅쓰고 影幀을 奉出하였으며, 移安에 移安을 거듭하였나 또 이를 맞아 王과 百官은 行在에서 왜 哭祭를 하였나의 뒷 의미가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朝鮮王朝末의 眞殿制度의 萎縮과 混亂은 오히려 王朝의 衰運과 軌를 같이하는 歷史의 흐름의 當然한 反響으로서 남들할 수 있으리라 본다.

〔註〕

① 黃胤錫, 頤齋稿, 卷二二《本朝祖宗眞殿事實辨》「漢制自諸帝各廟在京師者外, 別立原廟, 又爲高帝百世不遷, 分立高廟于郡國……」(頤齋全書, 景仁文化社, P, 二七七) 參照

漢書 卷二 惠帝紀 第二에 보면 「令郡諸侯王立高廟」라는 記錄이 있으며 五 漢書 卷六 武帝紀 第六에 「六年春二月乙未, 遼東高廟災」라 하여, 漢代에 郡國에 高廟를 세웠다는 史實을 알 수 있다.

仁祖實錄 卷三三 一三年 乙亥 二月 辛巳條 「禮曹啓曰, 國朝以來 太祖影幀分安外方五處, 以倣漢時 立廟郡國之制……」

② 後漢書志 第九, 祭祀下 參照

③ 李行等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四八 宮室中 瀋源殿 參照

④ 增補文獻備考 卷五九 禮考六 瀋源殿 및 柳義養撰, 春官通考, 卷二五 吉禮 眞殿中 瀋源殿 參照

⑤ 春官通考 卷二五 瀋源殿項目에서는 「世宗二十五年癸亥, 命鄭麟趾奉安太祖影幀, 幀背有書曰……」이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四八 瀋源殿에서 도 역시 同一한 記錄이 있다. 그러나 太祖實錄 卷一三七 年 戊寅 二月 癸卯條를 보면, 「造藝文春秋館大學士 成石璘 奉安 上影于咸州瀋源殿」이라고 明示되어 있다. 따라서 世宗實錄을 좀 더 詳考해본 즉, 世

宗 二五年 癸亥 九月條에, 「諭平安道觀察使趙克寬曰, 今聞咸吉道永興府瀋源殿役徒, 皆飢賊因慳, 至秋穀熟, 乃得復蘇, 豫甚憫焉, 凡君上有命, 奉行者不審緩急, 不恤民隱, 務要速成, 是豈知國家大體哉, 平壤府永崇殿之役, 何時訖工……」라 하였으며, 또 世宗實錄 卷一〇六 二六年 甲子 一〇月 丁卯條를 보면, 「太祖御容在慶尙, 全羅, 咸吉, 平安道者, 悉皆奉迎改畫, 其殿宇亦皆重新, 極其美麗」라는 記錄이 있다. 이로 미루어 二五年 九月의 瀋源殿役이란 殿宇를 새로이 단장했던 것이며, 世宗二四年 瀋源殿에 奉安했던 것은 太祖影幀의 改畫新本임을 알 수 있다.

⑥ 太祖實錄 卷一三, 七年 戊寅 三月 癸丑條 「遣判三司事僕長壽 奉安 上影于鷄林府」

⑦ 世宗實錄 卷九六 二四年 壬戌 六月 辛亥條에 보면, 「議政府據禮曹呈啓, 太祖睿容殿, 開城府則稱穆清殿, 咸吉道永興府則稱瀋源殿, 皆置殿直二人, 全羅道全州, 慶尙道慶州, 平安道平壤亦有影殿, 然未有稱號, 且無殿直, 請全州稱慶基殿, 慶州稱集慶殿, 平壤稱永崇殿, 各置殿直二人, 使監司殿最從之」라는 記錄이 있으며, 이로서 集慶殿이란 殿號가 생긴 것은 世宗 二四年 壬戌 六月임을 알 수 있다.

⑧ 李符等撰, 前揭書 卷二六 平壤府 宮室 永崇殿 參照

⑨ 柳義養撰, 前揭書 卷二六 舊眞殿中 永崇殿에 보면, (太祖御製西京影殿詩)가 收錄되어 있는데, 이를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薄相胡爲在此中 深思此理古人風 朝鮮始祖雖稱號 德之前賢愧不窮」
 又 權近 陽村集曰, 我太上王之北狩也, 駐蹕平壤, 觀其寫眞因題, 我殿下聞而感悅, 敬次其韻, 大小臣僚亦多和進, 殿下命臣進序其端, 臣云云.

⑩ 太宗實錄 卷二四 一二年 壬辰 一二月 丙申條 「完山, 鷄林, 平壤御容殿改號太祖眞殿」

⑪ 太宗實錄 卷二〇 一〇年 庚寅 九月 壬辰條 「遣平城君 趙狷 奉安 太祖眞于完山府」

⑫ 太宗實錄 卷三五 一八年 戊戌 五月 己卯條 「建影殿於於背洞 太祖潛邸舊宅也」

⑬ 柳義養撰, 前揭書 卷二五 吉禮 眞殿(春官通考上, 大東文化研究院刊行, P, 六三四~六四七) 參照

⑭ 東國輿地備考 第一卷 京都 文昭殿(구역 신증노구역지승람 I, P 一九六

參照

① 文獻備考 上券 廣孝殿項 및 世宗實錄 卷五八、一四年、壬子10月 甲寅 條參照

② 太宗實錄 卷二〇、一〇年 庚寅 八月 甲午條 「奉安 太祖康憲大王及 神懿 王后之眞子 文昭殿 親祭之、文昭殿朝夕獻官以入番 宦官及內侍官爲之」

③ 世宗實錄 卷五〇 一二年 庚戌 一月 己未條 「命考寧大君 補 奉安 御容 及 璿源錄于新構璿源殿」

④ 世宗實錄 卷七六 一九年 丁巳二月 壬戌條 「議政府啓、謹按古制、宋朝編 皇屬籍、詔宗正寺、建屬籍樓、以嚴奉之、我朝倣此、於宗簿寺西崗、建璿源 殿、奉安璿源錄及 祖宗昭容、合於古制……」

⑤ 成宗實錄 卷一五 三年 壬辰二月 己丑條 「傳于禮曹曰、崇恩殿改號奉先殿 高裕燮 《高麗書跡에 대하여》(韓國美術文化史論叢 P、二二六~二二九) 參照

⑥ 德宗의 影幀은 世祖二年 丁丑 秋九月、德宗이 世子일 때 疾患이 惡化되 자、世祖大王이 崔溼、安貴生 二人에게 命하여 草本을 그리게 했던 것으 로 成宗 三年 壬辰 봄에 崔溼、安貴生으로 하여금 이 草本에 의해 德宗御 容을 그려、月山大君第에 奉安했다가 이 때 懿廟로 移奉했다.

⑦ 柳義養撰 前揭書 卷二六 舊眞殿中 懿廟後殿參照

⑧ 上揭書 卷二五 眞殿 璿源殿、增補文獻備考 卷五九 禮考六 璿源殿參照

⑨ 이 永慕錄記는 그當時 璿源殿에 傳해오던 案이 있었는데、단지 奉審節 目만이 기록되어 있어、그 序次始末을 알 수 없기 때문에 成宗이 申叔舟 로 하여금 그것을 追記토록 命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太宗以上은 이미 歲月이 오래되어 可히 考察할 수 없으므로、단지 그 書樣軸數만을 記錄하고、世宗以後는 詳細한 기록을 하여 이를 謄寫하여 장차 傳해내리 도록 하였다.

⑩ 이에 대한 상세한 진말은 中宗實錄 卷九一、三四年 己亥 八月에서 부터 卷九四 三五年 庚子 一〇月사이의 記錄參照

⑪ 明宗實錄 卷九四 三年 戊申 一〇月 辛亥條參照

⑫ 增補文獻備考 卷五九 禮考六 影殿 璿源殿參照

⑬ 柳義養撰、前揭書 卷二五 古禮 眞殿中 璿源殿을 보면、「宣祖二十五年壬

辰倭亂 本殿參奉鄭澮 石麟 掘地奉安影幀」이라고 하고、北道陵殿志로 부터 所 引하여 「參奉李慶弘聞變歸家、殿卒嚴寬世 金士勤 朴仁祥等移奉於仁祥家、 奔審埋安、癸巳二月 府使黃燦如送禰禪備龍亭 移安雲在菴 又移安于屏風山 寺」라고 記述되어 있다.

⑭ 黃胤錫、前揭書 P. 二七八 參照

⑮ 宣祖實錄 卷四〇 二六年 癸巳 七月條를 보면、「……內藏山影幀移奉之 舉 似已太晚慮或不濟 集慶殿 御容方在禮安地清涼山近處 亦不可謂堅固可 持……」라는 句節이 있어、그 당시 集慶殿御容이 禮安에 있었으며、慶基 殿御容은 內藏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⑯ 江陵集慶殿의 初建時期나 慶州集慶殿의 廢棄時期는 詳考할 수 없다. 增 補文獻備考、春官通考、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모두 集慶殿을 江陵으로 옮겼다고만 되어있으며、正確한 年代는 나와있지 않으며、다만 江陵이 兵火가 미치지 않으므로 影幀을 江陵으로 移奉하였다고만 되어있다. 또 宣祖實錄、光海君日記에서도 이 사이의 事情에 대해서는 別반 言及이 없 으며、다만 仁祖實錄 卷一九 六年 戊辰 九月 戊辰條에 보면、「改修江原道 江陵集慶殿影幀行還安祭」라고 했는데、그 改修理由가 壬辰亂으로 때문고 더럽혀진데다가、집이 새로 습기차 不敬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하여、이미 그 이전에 移奉되어 있었다가、이 때 改修하여 다시 還安했음을 알 수 있다.

⑰ 黃胤錫、前揭書에서는 移建時期를 光海一四年 江華府에 永崇殿、奉先殿 을 移建했던 時期와 前後해서 일것으로 推定하고 있다(P、二七八參照).

⑱ 春官通考 卷二六 舊眞殿中 永崇殿、增補文獻備考、卷五九 舊影殿 永崇殿 을 보면、「宣祖二十五年 壬辰倭亂後 奉影幀于他所」라고 하고、禮曹謄錄에서 所引하여、「永崇殿太祖影幀移奉他所、幸而得完云 而其處所日月無可攷」라고 記述되어 있다.

⑲ 그러나 宣祖實錄 卷三四 二六年 正月 一〇日條를 보면、「前者 宗廟各室 之寶及 永崇殿影幀 使觀察使宋言慎秘密埋置平壤 今已收復 言慎之外亦有 識認之人急速搜出宜當 今雖克 復北賊猶在背後 將來之患不可不慮……」란 記錄이 있다. 그런데 以後 이 影幀을 搜出했다는 記錄이나 그 거취에 대 해서 아무 言及이 없다. 그런데 黃胤錫의 前揭書에 보면、「宣祖二十五年 壬辰亂 漢城開城平壤以 次淪陷而宗廟永寧殿及文昭璿源敬德穆清永崇諸殿神 位 御容並佚矣」라 하였으며(P、二七七參照)、또 「光海九年丁巳命平壤府

重建 永崇因就 慶基移摹 太祖御容 將奉詣 永崇……」이라 하여서, 光海君 時에言及되는 永崇殿影幀은 壬辰亂前까지 平壤 永崇殿에서 받들던 影幀 이 아니라, 慶基殿에서 移摹해 온 新本인 것으로 想定된다.

30 宣祖實錄 卷三四 二六年 癸巳 正月 己卯條參照

31 宣祖實錄 卷三四 二六年 癸巳 正月의 漢城府判尹 李德馨의 馳啓參照

32 宣祖實錄 卷六〇 二八年 乙未 二月 乙丑條에 보면 당시 慶基殿辟容은 牙山縣客舍에 奉安되어있다.

33 柳義養撰, 前掲書 卷二五 吉禮 眞殿中 慶基殿參照

34 宣祖實錄 卷三五 二六年 癸巳 二月 卷三六 二六年 癸巳 三月 사이의 記錄參照

35 光海君日記 卷七九 六年 甲寅 六月初八日 己丑條(太白山本)參照

36 承政院日記 康熙二七年 戊辰 四月 二日 甲寅條參照

黃胤錫, 前掲書 P, 二七八參照

37 柳義養撰 前掲書 卷二四 吉禮 眞殿中 永禧殿을 보면 正祖當時의 이 殿의 規模나 構造가 詳細히 나와 있다. 이를 대략 살펴보면,
正殿五室, 移安廳三室, 神門三間, 香門一門, 月郎三間, 典僕房三間, 北正門一間, 御齋殿, 東瘞宮齋室, 東邊大門一間, 外望瘞位, 癸井一, 御井一, 方塘一, 安香廳, 癸器庫, 典祀廳, 外香門一間, 殿司齋舍, 執事齋房八間, 外大門三間, 守門部將直所三間, 紅箭門一, 石碑二단 규모로 되어 있었다. 後에 더 增建하였으나 構造의 윤곽은 이로써 살필 수 있다.

38 光海君日記 卷一三〇 一〇年 戊午 七日 甲辰條參照

39 仁祖實錄 卷二四 九年 辛未 三月 辛巳條參照

40 增補文獻備考 卷五九 禮考六 舊影殿中 集慶殿參照

41 仁祖實錄 卷二四 九年 辛未 四月 壬寅條參照

春宮通考 卷二五 眞殿中 淸源殿 「仁祖十三年 乙亥 遣禮官 到本殿 募寫 御眞」

42 增補文獻備考에서는 當時 비록 御容은 淸源殿本으로서 移摹를 마쳤으나 殿字를 아직 重建치 못하였는데 마침 兵亂이 닥쳐 奉安할 경황이 없었으나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卷五九, 禮考 九集 慶殿參照)

43 正祖實錄 卷四八 二二年 戊午 四月 丙辰條參照

44 柳義養撰, 前掲書 卷二六 舊眞殿 崇恩殿參照

45 肅宗實錄 卷五九 四三年 丁酉 五月 甲戌條의 咸鏡道 永興府生負 朱泰夏의 上跡文參照

46 柳義養撰, 前掲書 卷二五 眞殿中 淸源殿參照

47 仁祖實錄 卷三四 一五年 丁丑 四月 己巳條參照

48 이 元宗影幀은 仁祖一〇年 以來 崇恩殿에 奉安되어 있다가, 一四年 丙子 亂時 南漢開元寺에 移奉되었다가, 丁丑亂後 崇恩殿에 遷安되었다가 다시 南別殿으로 옮겨 奉安되었었다.

49 肅宗實錄 卷五, 二年 丙辰 正月 辛丑條參照

50 肅宗實錄 卷六, 二年 丁巳 二月 丁未條參照

51 肅宗實錄 卷一九, 一四年 戊辰 三月에서 부터 九月까지의 記錄參照

52 肅宗實錄 卷二二 一六年 庚午 一月 甲申條에 보면, 「上又曰, 太祖大王 影幀, 五處奉安, 而皆有殿號矣, 即今只有二處, 乃慶基淸源是也, 列聖影. 奉安於南別殿, 而自前無號, 稱而前別殿, 此未可知也, 殿號有無, 令禮官考 出以啓, 是後大臣與館閣禮曹堂上會議, 稱永禧殿以進」

5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 江華都護府 備放 長寧殿(고전구역총서 卷四 一권 P, 三八〇)參照

54 肅宗實錄 卷五三 三年 三九年 癸巳 五月 丁亥條와 承政院日記 第四 七七册, 肅宗 三九年 癸巳 五月 一二日條參照

55 柳義養撰, 前掲書 卷二四 吉禮 永禧殿參照

56 拙稿 「朝鮮王朝時代의 御眞製作過程에 관하여」 美學 第六輯 P, 9 ~ P, 10參照, 韓國美學會刊 1979

57 東國輿地備放 卷一 京都 泰寧殿(민족문화추진회 발행 고전구역총서 卷四 四〇권, P, 一八二)參照

58 英祖實錄 卷一 二〇 四九年 癸巳 三月 丁酉條參照

59 正祖實錄 卷三三, 一五年 辛亥 一〇月 戊申條 「御眞告成, 御書香閣, 命諸 臣入瞻行禮, 命安御眞奎章閣之宙合樓, 仍詣景慕宮 展拜藏御眞小本于本宮 之望廟樓, 依英廟藏小本於毓祥宮之奉安閣故事也」

60 純祖實錄 卷一 即位年 庚申 八月 丁未條 「命顯隆園奉安閣 先朝御眞 移置 於華城行宮 以奉安閣於新陵封標處太近 大臣請移奉也」

또 顯隆園의 位置에 관해서는 璿源譜略 正宗朝項目(璿源系譜, 韓國史, 禮檀學會編 P, 三六九) 參照

61 憲宗實錄 卷三四 二年 丙申 十一月 癸巳條參照

62 天章閣은 宋나라 眞宗의 藏書閣의 名으로서, 會慶殿의 西쪽 龍圖閣의 北쪽에 있었다. 天禧四年에 丁謂等의 奏請에 의해 天章閣을 세워서 御集을 奉

安했다가(宋史本紀 卷八 眞宗 天禧四年 十一月 甲戌條), 그 後 仁宗이 即位하여 御眞도 奉安시켰다한다(宋史本紀 第九 仁宗八年 八月 丁亥條參照)

또 奎章閣의 御眞奉安制는 宋朝의 天章閣故事를 모방하였다는 기록은

正祖實錄 卷一 二 五年 辛丑 八月 丙申條, 九月 丁巳條와 承政院日記 第一四九二册, 正祖 五年 辛丑 八月 二六日條, 九月 一六日條에 누차 指摘되어 있다.

63 璿源系譜 P, 三六九~三七三 參照

64 高宗實錄 卷三 三年 丙寅 二月初四日條

65 增補文獻備考 卷五九 禮考六 天漢殿參照

66 高宗實錄 卷三 三年 丙寅 九月 二〇日 條參照

67 高宗實錄 卷四〇 光武八年 一〇月 一四日條 「眞殿影幀移摹之節, 第一

室, 以 璿源殿 戊戌 移摹翼善冠本, 第二室, 以 永禮殿 戊辰 移摹翼善冠本, 第三

室, 以 冷泉亭 甲子 圖寫翼善冠本, 第四室, 以 平樂亭 辛亥 圖寫遠遊冠本, 第五

室, 以 永禮殿 庚寅 圖寫遠遊冠本, 第六室, 以 平樂亭 丙戌 圖寫冕服本, 第七室

以 平樂亭 丙午 圖寫翼善冠本舉行」

68 高宗實錄 卷四〇 光武四年 一二月 二日條의 中樞院議官 李命喆의 上

疏文參照 秘書院日記 高宗光武四年 庚子 九月 三〇日條參照

69 高宗實錄 卷四一 光武五年 二月 二日條參照

70 東國輿地備攷 第一 권 京都 啓聖殿(고전구역 중서 제 四〇 권 P, 一九二)參照

71 明宗實錄 卷八 三年 戊申 一〇月 辛亥條 「……且 璿源殿 四面厚, 下鋪重輓

上設板床, 作函大如梓宮, 厚裹數重, 以藏牢固, 殿門陽氣不通, 雖燒以數百

斤之柴, 火氣何能上透乎, 是以奉審時開函, 璿氣觸人, 視色之由……」

72 仁祖實錄 卷二六 一〇年 壬申 四月 戊子條參照

73 英祖實錄 卷五四 一七年 辛酉 九月 癸巳條를 보면, 이에 대한說明이 보

이므로 여기 引用해 보기로 한다. 「領議政金在魯奏曰, 臣伏聞 慶基殿御容,

翼善冠近處後梢折裂, 而只餘單綃, 若以薄紙糊補, 則似宜, 且以襯壁掛奉之故五日奉審時, 輒有蠶魚云, 或依永禮殿 長寧殿例, 奉於空中, 或以衣架樣別造掛奉似宜, 令道臣奉審後狀聞, 上曰, 設環于盤子, 懸掛幀簇, 兩傍亦設素環以引之, 則雖不置架 可無搖動之患」

74 純祖實錄 卷三 元年 辛酉 二月 丁丑, 卷四 二年 壬戌 八月 庚戌條參照

75 肅宗實錄 卷三三 二 五年 己卯 閏七月 戊申條 「教曰, 永禮殿影幀移安時,

納于黑長櫃, 安于神輦, 此則平時儀衛也, 脫有緩急, 奚暇備儀衛 ……中略:

子意以爲, 別造一黑長筒, 平時則奉安於眞殿後別殿, 急難時, 三朝啐容, 皆安于筒內, 隨便陪往, 實爲萬全, 其令稟處, 後禮曹覆啓奉行焉」

76 高宗實錄 卷一 二, 一 二年 乙亥 一 月 二 五日條 「教曰, 憲宗大王御眞璿

源殿捲奉一本……」로 이루어 보전데, 影幀은 돌돌 말아서 보관하기도 했

던 것으로 생각된다.

77 享祀儀全般에 관해서는 柳義養撰 春官通考 卷二五, 二六 吉禮中 舊眞殿

과 眞殿項目(大東文化研究院刊行本中 上卷 P, 五八四~六五四)參照

78 承辛院日記 正祖 一 五年 辛亥 九月 二 七日條에 보면, 御眞圖寫時 諸臣의

入瞻奉安의 禮를 各年前例를 推考하여 整理해 놓은 記錄이 詳見된다.

79 中宗實錄 卷五五 二 〇年 乙酉 八月 辛亥條參照

80 柳義養撰, 前揭書 卷二五 吉禮 眞殿參照

81 仁祖實錄 卷二四 九年 未來 三月 辛巳條, 「江陵 集慶殿火 即 太祖眞殿也

禮曹啓曰, 禮云有焚先人之室, 則三日哭, 故曰, 新宮火亦三日哭 註曰, 先

人之室, 宗廟也, 神主所入故, 曰, 新宮, 以此見之, 眞殿與宗廟無異, 影幀

與神主一體, 自 上似當素服 率百官三日哭而止, 行慰安祭於宗廟 太祖大王

神位前, 遺官江陵, 亦設位行慰安祭, 看審失火之處, 然後眞殿參奉及守僕等

各別議罪. 答曰依啓, 且 慈殿亦當變服, 更議以啓. 回啓曰, 自前各陵失火,

別自 上變服而 內殿別無變服之例, 但令此 影幀之災 比陵上失火尤重, 自

上亦三日哭, 則自內服膳, 視常日無變 情所未安, 慈殿內殿嬪宮亦進素膳,

三日而止似當. 上從之」

82 中宗實錄 卷八 八 三 三年 戊戌 一 〇月 辛酉條, 明宗實錄 卷一 三 七 年 壬

子 一 月 辛卯條, 肅宗實錄 卷一 一 七 年 辛酉 六 月 辛丑條等參照

(서울女子大學講師)